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 생활로 바꾼다	교토
문화·관광	4	'유럽 문화유산의 날' 맞아 3일간 다채로운 행사	보르도
사회·복지	7	건강한 마음 등 5개 영역 담은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	런던
	10	도심지역에 노숙인 임시거처 시범 운영	케이프타운
	12	아동친화적 통합형 공공공간 조성사업 '가속 페달'	자카르타
행정·교육	15	미취학 아동 학교교육 대비능력 향상프로그램 도입	빅토리아
환경·안전	18	보증금제도 시행으로 재활용 용기 회수율 높아	앨버타
	21	'친환경적 사회연대 기여' 재활용센터 개관	파리
도시교통	23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재운영·대상지점 확대	뉴욕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런던	오도영
암스테르담	장한빛	버밍엄	정기성
베를린	신희완	피렌체	김예름
	유진경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도쿄	박재호
뉴욕	윤규근		이용원
	이수진	오사카	권용수
	이정근	베이징	박성은
	정수지	상하이	문혜정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에드먼턴	장지훈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토론토	고한나
시애틀	강민규		김용훈
시카고	김영준	보르도	김준광
스톡홀름	문선우	파리	배세진
	허윤희	시드니	정용문
바르셀로나	진광선		

##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 생활로 바꾼다

‘걷는 마을 교토’ 종합교통전략… 비자동차분담률 80% 이상으로

일본 교토市 / 도시교통

- 자동차 중심의 생활을 보행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걷는 마을 교토’ 종합교통전략을 시행 중인 일본 교토市는 미래 공공교통 대비, 보행공간 창출,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조성 등 총 94개의 실행 프로젝트를 추진해 비자동차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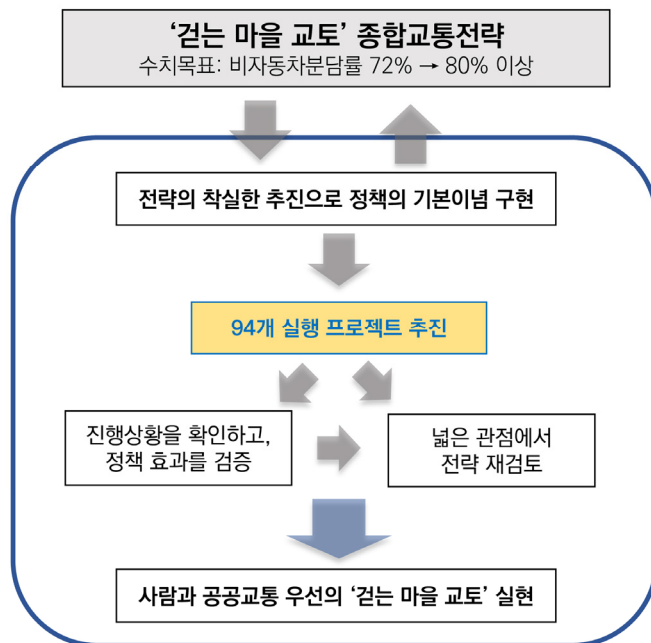
### - 개요

- ‘걷는 마을 교토’ 종합교통전략의 기본이념은 자동차 통행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억제 정책을 바탕으로 ‘자동차’ 중심의 생활을 ‘보행’ 중심으로 바뀌어나가는 것
  - 목표는 비자동차분담률을 72%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
- 기존 공공교통 관련 55개 프로젝트, 마을 만들기 관련 17개 프로젝트, 라이프스타일 개선 관련 22개 프로젝트를 엮어 총 94개의 실행 프로젝트를 구성
  - 기존의 공공교통 프로젝트는 버스 노선 정비나 무장애(배리어프리)화 등 공공교통의 편의성 향상이 주 목적
  -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보행공간 확충, 미래 공공교통 대비, 자동차 교통의 효율성 향상, 퍼스널 모빌리티(1인용 교통수단) 전환 등으로 정책을 뒷받침
  -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트는 「걷는 마을 교토」 현장 보급·계몽, 교통 행동 스타일 재검토를 촉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 등

### - 주요 내용: 94개 실행 프로젝트

- 2017년 추진 주요 프로젝트
  -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미래 공공교통 환경 정비
    - 자율주행기술의 빠른 발전과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에 따라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급속한 보급이 예상
    -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감소, 등하교 환경 개선, 도심과 관광지의 교통체증 해소, 주차장 감소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추구
  - 관광지가 집중된 히가시오지도리(東大路通)의 자동차 통행 억제, 보도 확장, 전신주 지중화 추진으로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보행공간 창출

- 관광지 교통대책을 시행해 걷지 않으면 즐길 수 없는 교토의 매력 요소를 최대한 발굴
- 걸으면서 즐기는 마을 존 조성
  - 시조도리(四条通)의 보도를 확장해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 조성
- 그 밖에 파크 앤드 라이드(Park and Ride) 추진, 교토역 앞 광장 정비, 교토 교통안내 앱 ‘버스·철도 달인’의 정보안내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2018년 이후의 종합교통전략 전개 방향
  - 마을 만들기 관련 프로젝트는 자율주행기술의 보급을 향한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유동실태조사 등 시행
  - 공공교통 관련 프로젝트는 교통 무장애화 지속 추진
  - 라이프스타일 관련 프로젝트로는 ‘걷는 마을 교토’ 현장의 보급·계몽, 교통 행동 스타일 재검토 촉구 등의 정책을 마련



[그림 1] '걷는 마을 교토' 종합교통전략 개요

- '걷는 마을 교토' 종합교통전략의 효과
  - 2017년 비자동차분담률은 약 77%로 목표치인 80%에 근접
  - 철도와 버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

- 철도 이용자 수는 2016년에 조금 감소했지만, 2010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며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 견줘 철도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음
- 버스 이용자 수는 다른 지역이 2006년부터 거의 변함이 없는 데 반해, 교토는 2012년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CO<sub>2</sub> 배출량 감소
  - 환경 캠페인 ‘DO YOU KYOTO?’ 프로젝트의 결과로 친환경적 교통정책이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
    - 운수부문의 CO<sub>2</sub>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약 20% 감소
- 시가지 유출입 교통량, 시영 주차장 이용 차량 수, 관광객의 자동차 이용 비중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보행자 수나 숙박 관광객 수 등은 증가하는 경향 확인
- 자동차 대신 걷기를 위주로 하는 생활습관 변화는 주민 건강에도 좋은 영향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233421.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233/233421/3setsumeisiyou.pdf>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 문화·관광

### ‘유럽 문화유산의 날’ 맞아 3일간 다채로운 행사

프랑스 보르도市 / 문화·관광

-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유럽 문화유산의 날’(Les Journées européennes du patrimoine)은 프랑스에서 시작해 전 유럽으로 확산된 행사이며,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던 문화유산이나 유명 건축물을 거의 무료로 체험할 수 있음. 보르도市도 예년과 같이 다채로운 이벤트, 공연, 전시, 건축물 방문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시민에게 3일간 무료로 제공



[그림 1] 유럽 문화유산의 날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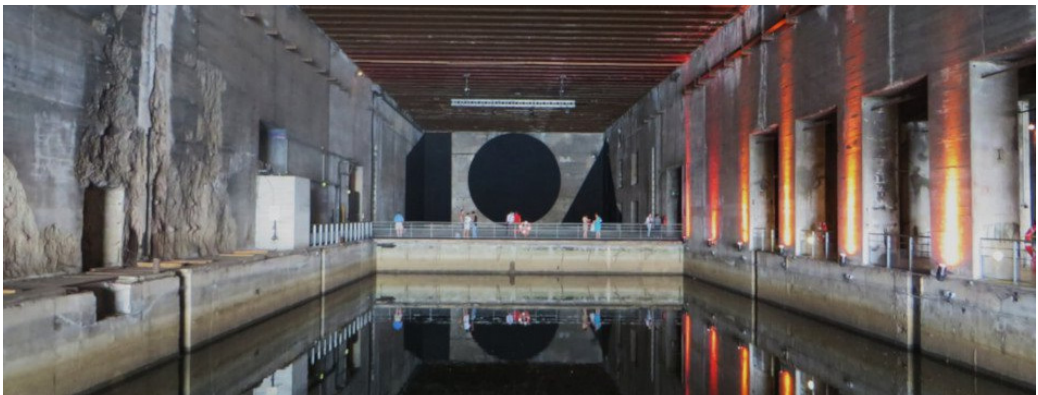
#### － 배경

- ‘유럽 문화유산의 날’은 1984년 프랑스 문화부의 기획으로 시작해 전 유럽의 성공적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 1984년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인 자크 랑의 제안에 따라 ‘역사유적의 문을 여는 날’이라는 타이틀로 9월 3번째 일요일에 개최
  - 첫 회의 성공에 힘입어 이듬해인 1985년 유럽 총회에서 자크 랑 문화부 장관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추천했고, 네덜란드·벨기에·영국·스위스 등이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바로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치름
  - 1991년 유럽총회는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유럽문화유산의 날’로 명명하고 총괄 사무소를 지원

- 1993년 프랑스가 총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같은 해 24개 유럽 국가가 참여
- 2010년부터는 50개국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성공적인 문화행사

－ 주요 내용

- 일반적으로 8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3일간 도시별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명 건축물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방문할 수 있게 하며, 대부분 무료입장
- 매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흥미를 유발하며, 올해 보르도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
  - 1시간 안에 정해진 문화유산을 모두 방문하며 숨겨진 힌트를 얻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탈출게임이 인기
  - 자전거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면 문화유산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을 찾아갈 수 있는 도심 자전거 하이킹 이벤트
- 해마다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성격으로 행사 방향을 잡음
  - 올해의 주제는 ‘공유의 예술’로 모두가 공유·공감하는 예술, 또는 생소했던 분야를 대중과 나눠 보는 기회 제공
    -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작품을 보르도시의 대표적 근대 건축유산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만든 ‘나치 잠수함 병커기지’에 전시



[그림 2]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보르도 근대 건축유산인 ‘나치 잠수함 병커기지’

- 무엇보다 평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장소를 대중에 공개하는 날로 대중에게 각광 받음
  - 보르도 오페라 공연장인 그랑떼아트르를 비롯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문화 공간, 나치 잠수함 병커기지와 같은 근대역사 유산까지 무료 개방
  - 보르도 지상경전철 트램웨이 차량기지과 같은 시설도 방문할 수 있음

- 또한, 근현대 주요 건축물과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 은행 건물과 같은 사유지도 대중에 개방
-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 설계의 ‘라 씨떼 프뤼제’, 현대 건축의 세계적 거장 ‘렘 쿨하스’의 보르도 주택도 미리 예약하면 한정된 인원에만 방문이 가능(현재 실 거주자가 살고 있는 곳임)
- 시사점
  - 문화유산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수록 보존의 의미도 커진다고 볼 수 있음
  - 대중에 공개하기 민감하거나, 사유물이라서 공개가 어려운 문화유산은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하면 시민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에게도 자국의 문화유산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

<http://www.aquitaineonline.com/actualites-en-aquitaine/gironde/3924-journees-du-patrimoine-bordeaux.html>

[https://fr.wikipedia.org/wiki/Journ%C3%A9es\\_europ%C3%A9ennes\\_du\\_patrimoine](https://fr.wikipedia.org/wiki/Journ%C3%A9es_europ%C3%A9ennes_du_patrimoine)

<https://www.linternaute.com/sortir/guide-des-loisirs/1318726-journees-du-patrimoine-2018-l-elysee-star-des-journees-du-patrimoine/>

<http://www.bordeaux-metropole.fr/Actualites/Journees-europeennes-du-Patrimoine-2018?oaq%5Bpassed%5D=1&oaq%5Border%5D=latest>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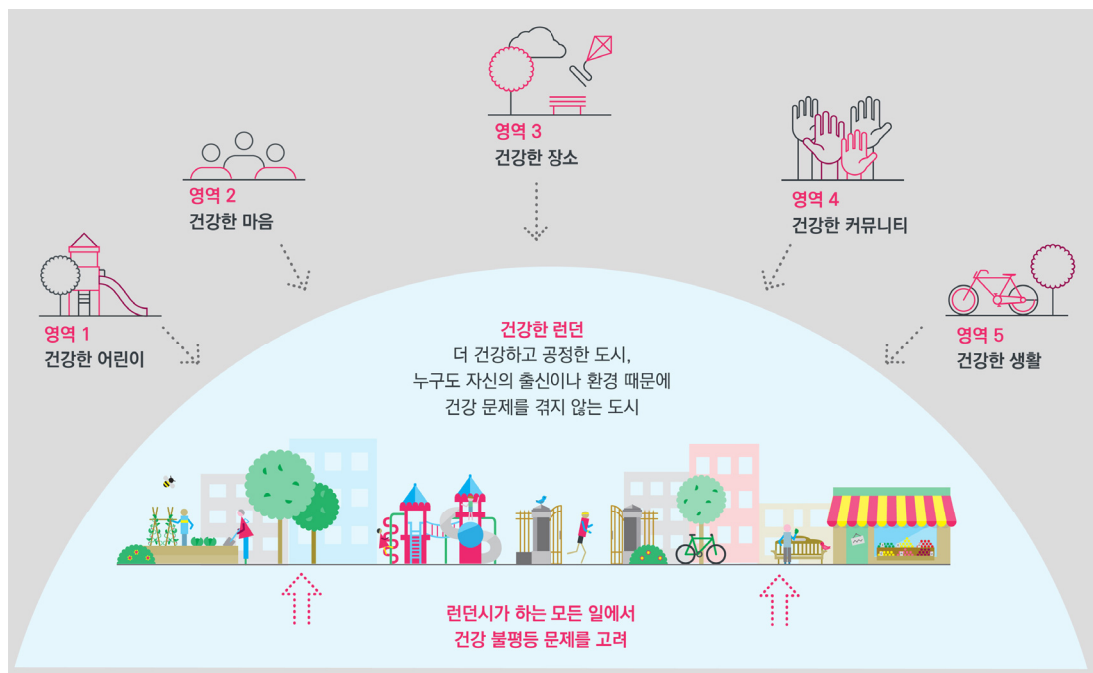


## 사회·복지

### 건강한 마음 등 5개 영역 담은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

영국 런던市 / 사회·복지

- 영국 런던市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 아래, 모든 시민이 자신의 출신이나 처한 환경 때문에 건강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Health Inequalities Strategy)을 발표하고, 어린이·마음(정신건강)·장소·커뮤니티·생활의 5개 영역별로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
- 주요 내용
  - 런던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은 모든 시민이 다음 5가지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제시
    - 건강한 어린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장소, 건강한 커뮤니티, 건강한 생활



[그림 1] 런던 건강 불평등 개선전략 개요

- 건강한 어린이(Healthy Children)
  - 비전: 런던의 모든 어린이가 영유아기와 저학년 때에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보호자를 도움
  - 2020년까지 런던 내 어린이의 10~15%를 런던 영유아·어린이 건강프로그램(Healthy Early Years London Programme)에 등록할 계획
  - 주요 실천전략(총 15개)
    - 국민건강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해 취약계층 영유아·어린이의 의료서비스 지원
    - 런던시청 1층에 모유 수유를 하기 편한 장소를 마련하고 안내
- 건강한 마음(Healthy Minds)
  - 비전: 시민이 정신건강 문제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정신건강에 관한 내적 갈등을 덜어주며 도시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
  - 2021년까지 런던 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신건강 응급처치(First Aid)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주요 실천전략(총 22개)
    - 학생, 영유아,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노숙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에 집중
    - 직장 내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직장문화 확립 기준(Good Work Standard)을 마련
- 건강한 장소(Healthy Places)
  - 비전: 모든 시민이 건강한 거리와 상쾌한 공기를 누리고 녹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와 노숙자 감소 등을 추구
  - 2050년까지 런던의 대기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릴 것
  - 주요 실천전략(총 24개)
    -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초저공해지역(Ultra-Low Emissions Zone)을 적용하고, 건물과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임
    -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좋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거리 환경을 조성
    - 2022년까지 11만 6천 호의 '정말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

- 건강한 커뮤니티(Healthy Communities)
  - 비전: 런던시민 누구나 자신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커뮤니티가 건강해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
  - 2028년까지 런던의 모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을 마련
  - 주요 실천전략(총 23개)
    - 많은 시민이 이웃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역동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통합 전략’(Social Integration Strategy)을 제시
    - 2년 단위의 사회적 유대 강화 디자인 플랫폼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하여 각 지자체의 지원 아래 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와 활동 장려
- 건강한 생활(Healthy Living)
  - 비전: 런던시민이 육체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음식을 쉽게 접하고, 마약·알코올·담배·도박과 같은 유해요소에서 먼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 주요 실천전략(총 18개)
    - 런던 교통공사 주도로 2041년까지 모든 시민이 하루 최소 10분씩 2번 이상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런던시는 지속가능한 음식 도시 네트워크(Sustainable Food Cities Network)에 가입하고 영국의 식당 공중보건 기준을 따름

<https://www.london.gov.uk/what-we-do/health/health-inequalities-strategy>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is\\_implementation\\_plan.pdf](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is_implementation_plan.pdf)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ealth\\_strategy\\_2018\\_low\\_res\\_fa1.pdf](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ealth_strategy_2018_low_res_fa1.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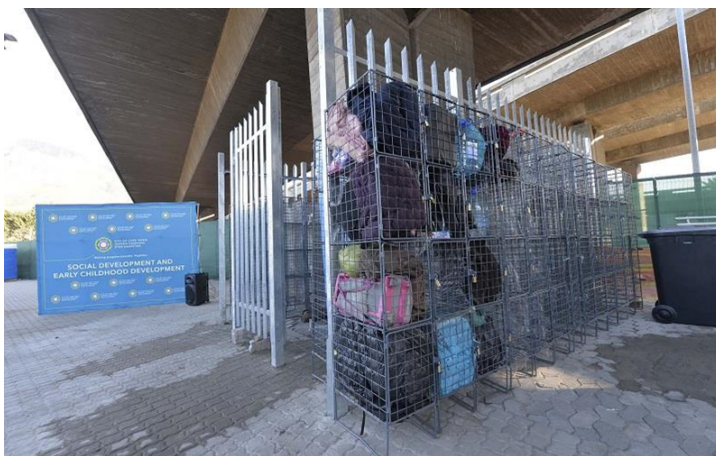
## 도심지역에 노숙인 임시거처 시범 운영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市 / 사회·복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市는 지난 7월 3일 노숙인을 위한 임시거처 ‘세이프 스페이스’(Safe Space)를 도심 지역에 설치하고, 노숙인 재활단체와 협력해 직업 재활프로그램과 의료 검사서비스 등을 제공해 노숙인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

### - 주요 내용

- 케이프타운시는 지난 7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안전한 임시거처를 시범 운영
  - 시정부의 사회개발 및 유아발달부(Social Development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Department)가 노숙인 재활단체의 도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실행
  - 임시거처 사용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임시거처를 사용하는 노숙인은 재활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도움을 받게 됨
- 노숙인 임시거처 정책은 예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지난 2017년 2월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됨
  - “무엇보다도 이 임시거처를 사용하는 노숙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주요한 목표”
    - 안전·보안 부문 시장 위원 알더만 JP 스미스(Alderman JP Smith)
- 시범 운영하는 임시거처는 최대 230명의 노숙인이 머물 수 있도록 지었으며, 목욕 시설과 식수를 제공하고 개인 소지품 보관함도 사용할 수 있음



[그림 1] 케이프타운 노숙인 임시거처 세이프 스페이스의 개인 소지품 보관함

-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을 비롯해 복지와 의료서비스도 제공
  - 직업 재활프로그램과 함께 단기 취업 기회 제공
  - 현장에서 의료검사를 진행해 필요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
  -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의 마약 상담 시행
- 시정부는 이 임시거처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기대
  - 도시 곳곳에 있는 불법 판자촌을 줄이고, 마약·술·무기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노숙인 시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
- 지난 2018년 8월 14일에는 세이프 스페이스에서 노숙인 커플의 결혼식도 열림
  - 케이프타운 시정부는 ‘여성의 달’을 맞아 30년 넘게 노숙인 생활을 한 커플의 결혼식을 진행
    - 30년 넘게 노숙인 생활을 한 릴웰린 제니커(Llewellyn Jenniker, 45세)와 세실리아 압솔롬(Cecilia Absolom, 42세)이 주인공
  - 이들은 세이프 스페이스로 거처를 옮기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전함



[그림 2] 지난 8월 세이프 스페이스에서 열린 노숙인 결혼식

<http://www.capetown.gov.za/Media-and-news/City%20pilots%20Safe%20Space%20for%20street%20people>

<https://www.youtube.com/watch?v=yJj08tquypA&t=1s>

<https://www.youtube.com/watch?v=ecsZgokdFT0>

김소망 통신원, somang0526@gmail.com

## 아동친화적 통합형 공공공간 조성사업 ‘가속 페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 사회·복지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며 교육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적 통합형 공공공간(RPTRA)을 지난 2015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 구(區)마다 1개소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배경
  - RPTRA는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아동친화적공간 조성 프로그램으로 성장
    - RPTRA는 전 주지사 아후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으며, 현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도 계속해서 추진 중
    - 자카르타주는 이 프로그램으로 2017년과 올해 연속해서 인도네시아 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수여하는 ‘아동친화적인 도시’ 상을 수상
    - 최근 아구스 구미왕 사회부 장관은 자카르타주의 아동친화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함
  - 2017년 말 기준, 북 자카르타시 64개소 등을 포함해 자카르타주 전체 267개 구 중 총 164개 구에 293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올해 주정부는 모든 구에 1개소 이상의 RPTRA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
- 주요 내용
  - 놀이시설뿐 아니라 간호실, 다용도홀, 도서관, 공중화장실도 구비
    -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카르타 스마트시티 포털과 연계된 CCTV도 설치
    - 미끄럼틀, 그네, 농구대, 뱀사다리 게임판 등 다양한 놀이시설 마련
    -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이야기책 제공 등 문화예술 활동장소로도 기능해,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뿐 아니라 근처에서 쇼핑·근무 중인 성인도 찾음
  - RPTRA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확보
    - 주로 주정부 산림청 등 다른 정부부서 소유의 토지 활용으로 해결 중
    -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산세 완화, 완공된 RPTRA 내에 광고부착 허용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중
    - RPTRA의 면적은 부지확보 여건에 따라 300~30,000㎡로 다양





[그림 1] 다양한 규모와 시설로 구성된 자카르타 아동친화적 통합형 공공공간

- 주정부는 올해 932억 루피아(7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 48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
  - 중앙 자카르타시 4개소(75억 루피아(5.7억 원)), 남 자카르타시 5개소(90억 루피아(6.8억 원)) 등
  - 각 시의 주택국이 건설과 보수관리를, 아동보호·인구통제국은 인력 관리를 담당
  - 각 시 주택국은 공개 입찰을 거쳐 설계와 시공을 맡을 민간 기업을 선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금으로도 RPTRA를 조성
  - CSR 기금의 집행은 시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서 관할
- 각 구는 RPTRA의 관리자를 주민 공모로 선발
  - 시립도서관은 RPTRA 관리자에게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제공하여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는 활동을 수행

- 최근 인도네시아 내 약물 오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해 RPTRA 관리자를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하고, 약물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기 시작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9/03/memakai-dana-csr-rptra-di-jakarta-utara-akan-diaudit-bpk>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5/26/orangtua-senang-ada-rptra-di-jakarta-fair-kemayoran>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9/12/south-jakarta-to-have-5-new-rptras.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3/08/sandiaga-plans-to-develop-more-child-friendly-parks.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7/03/22/public-spaces-managers-learn-storytelling.html>

<http://www.beritajakarta.id/read/48711/rptra-berhasil-wujudkan-jakarta-jadi-kota-layak-anak#.W6ENwP4zZYh>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9/07/menteri-sosial-minta-kota-ramah-anak-tidak-hanya-di-dki-jakarta>

<http://www.beritajakarta.id/read/61321/pembangunan-empat-rptra-di-jakpus-masuk-tahap-kajian-rup#.W6ERaf4zZYh>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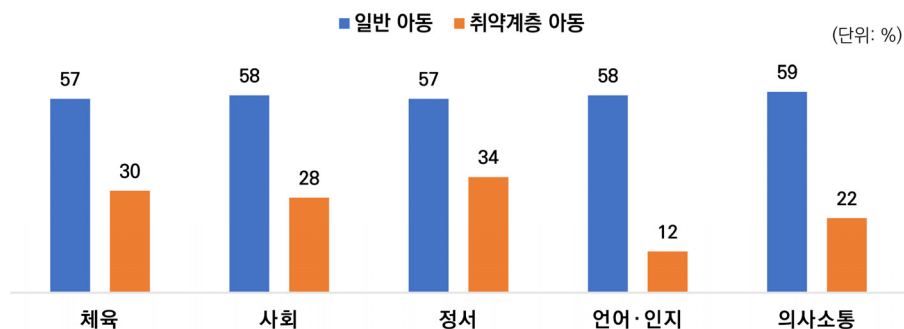


## 행재정·교육

### 미취학 아동 학교교육 대비능력 향상프로그램 도입

호주 빅토리아주 / 행재정·교육

- 호주 빅토리아주는 학령전기 아동의 교육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호주 최초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대비 프로그램’(School Readiness Program)을 시작함. 학교교육 성취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각 아동에게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평등한 출발’(Equal Start)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배경 및 목적
  - 실태조사 결과 학령전기 아동의 교육 참여율이 높지만, 교육의 불평등은 심각
    -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학령전기 아동이 유치원(Kindergartens)이나 프리스쿨(Preschools)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하지만, 최근 학령전기 아동교육 실태조사에서 학교교육 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입학하는 아동이 5명 중 1명꼴로 조사
  - 입학 전에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차이를 줄이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동은 교육발달이 상대적으로 지체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그림 1]과 같이 전국 일제고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그림 1] 초등학교 3학년 전국 일제고사 읽기 분야 우수 성적자 비율

- 주정부는 2017년에 ‘유아교육 개혁 계획’을 도입해 이 문제에 대비
  - 미취학 아동의 학교교육 대비능력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발달이 취약한 아동을 사전에 발굴해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할 목적
  - 호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

#### - 주요 내용

- 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
- 지원금 지원 대상은 유치원(Kindergarten)이나 프리스쿨(Preschool)
  - 지원금은 기관별 교육 서비스 불이익 경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천~2만 호주달러(90만~1,800만 원)
  -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주요 지표로 사용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교육 욕구는 더 크지만 교육 서비스 접근성에서 불이익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이 많은 기관에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
- 지원을 받은 기관은 주정부에서 선정한 교육 서비스 구매에 이를 사용
- 주정부는 학교교육 대비에 필요한 기초 기술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
  - 1) 의사소통(언어 개발), 2) 웰빙(사회관계와 감정조절), 3) 포용과 통합
  - 이 3가지 영역에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학교교육에서 기대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 주정부는 세부적인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3가지 영역별 메뉴 형식으로 준비
  - 각 기관은 이 메뉴판을 바탕으로 아동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교육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구매
  - 모든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국내외 연구에 따라 그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구성
    -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언어장애 치료사(Speech Therapist)나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등을 기관에 초청하여 일대일 혹은 집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웰빙 영역에서는 상담심리 서비스 등을, 포용과 통합 영역에서는 이중언어 독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학교교육 대비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
  - 첫째에는 시범사업으로 전체 유치원의 3분의 1 정도를 선정하여 재정지원
  - 수치로는 대략 580개 기관에 등록된 2만여 명이 우선 혜택을 받음
-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호주 원주민 아동을 보유한 모든 기관은 첫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21년에 모든 유치원이 이 프로그램 대상으로 지정되게 되면, 학교교육 대비 프로그램은 주정부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될 것

<https://www.premier.vic.gov.au/helping-victorian-children-start-school-on-track/>

<https://www.education.vic.gov.au/childhood/providers/funding/Pages/srf.aspx>

<https://www.education.vic.gov.au/childhood/providers/funding/Pages/SRFmenu.aspx>

<https://www.education.vic.gov.au/Documents/about/educationstate/ec-reform-plan.pdf>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 환경·안전

### 보증금제도 시행으로 재활용 용기 회수율 높아

캐나다 앨버타주 / 환경·안전

- 캐나다 앨버타주는 자체 폐기물 관리 전략의 일부로 용기 재활용 보증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3만 개 이상의 음료 용기에 보증금과 처리 수수료를 미리 부과하여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게 하되 빈 용기의 수집과 보증금 환불을 재활용 용기 수집센터(Bottle Depot)에 위탁해 높은 재활용 용기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내용: 앨버타주 용기 재활용 제도(Alberta Container Recycling Fee)
  - 주정부는 폐기물 관리 전략(Waste Management Strategy)의 하나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
    - 대상이 되는 음료수·주류의 용기를 미리 지정하고, 소비자가 해당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과 부대 수수료를 먼저 내는 구조
    - 수수료는 재활용 시스템 운영비 중 자재수익(용기의 회수가치)과 미회수 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
  - 용기별 보증금은 1리터 이하의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가 10센트(86원), 4리터 이하 1리터 초과인 종이·유리·플라스틱 용기는 25센트(215원)
  - 앨버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료 용기는 재활용 대상에 해당
    - 플라스틱 음료 병과 주전자,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코팅 용기, 유리병, 금속 캔 등 13만 개 이상의 음료 용기가 주정부에 등록
    - 앨버타주는 북미 최초로 우유 용기에도 보증금제도를 시행한 주
    - 보증금 환불이 가능한 용기는 ‘Recyclable/Refund Where Applicable’이라는 표기가 측면에 있으며, 관련 웹페이지서도 확인 가능



[그림 1] 음료 캔에 표기된 보증금 환불가능 표시

- 재활용 용기 수집센터로 명명한 사설 기관이 빈 용기의 반납과 보증금 환불을 담당하며, 수집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음
  - 소비자 직접 방문: 보편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모아 두었던 용기를 수집센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
  - 픽업 서비스: 요식업, 호텔 등 재활용 용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수집센터가 반납을 대행하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
  - 보틀 드라이브(Bottle Drive): 지역 공동체가 인근 수집센터와 협조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개개인의 용기를 수거하고 환불된 보증금을 기부하는 방식
- 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음료용기 관리위원회가 재활용 시스템 운영을 감독
  - 해당 관리위원회가 승인한 복수의 용기 수집 업체에서 수집을 담당



[그림 2] 재활용 용기 수집센터 내부

- 앨버타주의 용기 재활용 제도 특성
  - 앨버타주는 캐나다 내 다른 주와 비슷한 용기 재활용 제도를 운용 중이며 비교적 이른 199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다른 주와 다른 점은 우유 용기를 보증금 대상에 처음부터 포함시켰고,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 또한, 다른 주는 대체로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을 주류용기로 한정했음
  - 회수율은 8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 앨버타 지역의 용기 재활용 관련 사례

- 시민단체 체인지 댓 카운트(Change That Counts)의 빈 병 사냥 시범사업
  - 빈 용기 재활용이 환경적·재정적으로 많은 이득이 됨을 알리는 캠페인 시행
  - 앨버타주의 재활용 시스템을 잘 몰라서 보증금을 세금으로 오해하는 주민에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줌
  - 6월부터 광역 앨버타 빈병 사냥(Great Alberta Bottle Hunt)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봉사자를 동원해 빈 병 회수율을 높이는 중
- 도심 노숙자가 빈 병 수집 보증금 일부를 지역 환경 미화에 사용해 화제
  - ‘위스키’라는 애칭을 가진 노숙자 데일(Dale)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일대의 건물 앞 황무지를 환불받은 보증금으로 꽃을 구입하여 가꾸고 있어 주변 상인과 주민의 찬사를 받고 있음
- 7살 어린이가 주도한 지역 이재민 돕기 보틀 드라이브
  - 2018년 6월 화재로 이재민이 된 이웃을 돕기 위해 7살 어린이가 어머니의 페이스북을 이용해 보틀 드라이브 방식의 성금 모금을 시작함
  - 보틀 드라이브 첫날 1,324캐나다달러(115만 원)에 달하는 빈 병을 수집하였으며, 총 3,000캐나다달러(26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함

<https://albertadepot.ca/recycling-101/frequently-asked-questions>

<http://www.bottlebill.org/legislation/canada/allprovs.htm>

<http://greenbottledepot.com/>

<https://globalnews.ca/news/4319032/boy-bottle-drive-hanley-family-house-fire>

<https://calgaryherald.com/news/local-news/albertas-largest-bottle-drive-to-be-piloted-in-calgary-and-edmonton>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bottle-picker-with-an-eye-for-flowers-cleans-up-whyte-avenue-alley-1.4822054>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mailto:macgyvar@gmail.com)

## ‘친환경적 사회연대 기여’ 재활용센터 개관

프랑스 파리지 / 환경·안전

- 프랑스 파리시는 시민 참여예산 프로젝트의 하나로 친환경적 사회연대를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립함. 시민에게 기증받은 물건을 수리해서 싼 값에 판매할 뿐 아니라, 푸드뱅크나 무료 전자기기 수리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협력함으로써 ‘환경’과 ‘연대’라는 2가지 목표를 추구
- 친환경적 사회연대를 위한 재활용 센터 구축
  - 2017년도 파리시 참여예산 프로젝트(※ 339호, 398호) 중 하나로 기획
  - 시민이 기증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능한 낮은 가격에 시민에게 재판매
    - 파리 2구의 레오폴드 벨랑(Léopold Bellan)가(街) 13번지에 위치
  -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처럼 기부받은 물품을 빈곤층에게 배분해주는 시민 단체인 ‘엠마우스 알테르나티브’(Emmaüs Alternatives)가 운영을 맡음
  - 630㎡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매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
    - 술과 커피 등을 낮은 가격에 파는 바(bar), 아틀리에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 등을 운영할 예정
    - 푸드뱅크처럼 식당의 남은 음식을 수거해 빈곤층에게 나눠주는 사회단체 ‘에코 샤를리’(Eco Charlie)가 사용할 공간 대여
    - 시민단체 ‘리페어 카페’(Repair Café)에서 무료로 전자기기를 고쳐주는 공간으로도 활용
    - 보름마다 시민 간의 만남과 토론의 장을 열 예정
  - 이틀에 600kg 정도의 물건을 기증받을 정도로 활성화
    - 여기서도 팔리지 않는 물건은 시민단체에 넘겨 무료로 빈곤층에게 전달
  - 누구나 조건 없이 물건을 기증할 수 있으며, 받은 물건은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측정해 분류하고 검사와 수리를 마친 다음 판매
  -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피아노와 같은 큰 물건의 운반을 위해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용달차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함
  - 수거와 분류, 평가와 수리 등의 작업을 위해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유급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 참여예산의 틀 내에서 재활용센터의 철학적 목표
  - 이 재활용센터의 핵심 목표는 ‘환경’과 ‘연대’의 2가지
    - ‘환경’과 ‘연대’는 파리지장 안 이달고(Anne Hidalgo)의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 또한, 이달고 시장의 또 다른 시정철학인 ‘참여’를 실현하는 ‘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
  - 안 쓰는 물건을 수리하고 다시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
  - 빈곤층에게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연대에도 이바지



[그림 1] 파리 친환경적 재활용센터 전경과 내부

<https://www.paris.fr/actualites/l-alternative-nouvelle-ressourcerie-dans-le-centre-de-paris-6080>

<https://www.paris.fr/budgetparticipatif2018>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 도시교통

##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재운영·대상지점 확대

미국 뉴욕시 / 도시교통

- 미국 뉴욕시는 2013년부터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을 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제정해 교통안전 증진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주 상원의회에서 정치적 문제로 이 법의 연장이 무산되어 비난을 받았음. 이에 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활용해 임시로 단속 카메라 재운영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대상지역을 290개소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
- 주요 내용
  - 미국 뉴욕주는 2013년 뉴욕 시내 5개 자치구(Borough) 스쿨존 140개소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5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
    - 이후 고정식 카메라 120대와 이동식 카메라 20대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
  - 단속 시행 이후 많은 긍정적 효과 발생
    - 2017년도에만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16km) 이상 어긴 과속차량 140만 여 대에 각각 50달러(5만 5천 원)의 범칙금을 부과
    - 해당 지역에서 과속차량은 63%, 교통사고 부상자가 17% 감소
  -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5년에 불과한 일시적 법안이어서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
  - 양당 간 정쟁으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의 운영기한 연장이 무산
    - 2018년 주 상원의회는 단속 프로그램 확대를 안전으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장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쳐 많은 이의 비난을 받음
    -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시장, 뉴욕주 하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교내 무장경비 배치 등의 법안과 함께 처리를 주장하다가 학생 교통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며 비판
  - 단속 중단 기간에도 차량 통과속도를 지속 측정한 결과, 많은 차량이 스쿨존 내에서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 사이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차량 대수가 132,253대(일평균 7,785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뉴욕시장과 뉴욕주지사가 스쿨존 과속단속 프로그램 재시행을 위한 합법적 방안을 모색한 결과,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음
  -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주정부 차량관리부의 차량 소유주 자료를 뉴욕시에서 단속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됨
  - 이후 시의회에서 단속 카메라 운영 관련법을 처리하여 뉴욕시는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과속 단속을 실행할 수 있게 됨
    - 또한, 앞으로 대상지역을 290개소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
- 다만 이와 같은 우회 절차는 30일 주기로 주지사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필요
  - 이러한 임시적 운영 방식은 기존에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음 회기에 통과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

#### – 시사점

-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례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53-18/mayor-de-blasio-signs-speed-cameras-legislation/#/0>

<https://www.amny.com/news/school-speed-cameras-1.20097256>

<https://www.amny.com/transit/school-speed-cameras-nyc-1.20834442>

<https://www.nytimes.com/2018/07/25/nyregion/speed-cameras-nyc-schools.html>

<https://ny.curbed.com/2018/6/21/17488928/nyc-speed-cameras-school-zone-legislation-expire>

<http://www.nydailynews.com/news/politics/ny-pol-speed-cameras-nyc-20180813-story.html>

윤규근 통신원, gggyoon89@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http://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https://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https://www.facebook.com/seoulinstitute)

